

# 취업자 수 증감의 원인 및 전망

성재민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10월 취업자 수 27천 8천 명 증가(전년동월대비)
- ◎ 10월의 취업자 증가폭 축소는 연초부터 지속된 노동시장 둔화의 연장선상에서 해석 가능
  - (1) 장기·구조적 측면: 지난 몇 년간 크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에 기여했던 50대 연령층 인구 증가폭 둔화(2014년까지 20만 명대 유지했으나, 이후 꾸준히 인구 증가폭 줄어 2016년 10월 110천 명 ↑)
  - (2) 최근 특징: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시장 활력 감소 등 2016년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. 건설업을 제외한 경기둔화 영향도 반영
  - (3) 이번 달 특징: 임금근로자 증가폭 158천 명까지 하락하였으나,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고용 증가 및 최근 몇 달간 생산활동이 크게 활발해진 건설업 취업자 증가 등으로 인해 27만 8천 명 고용 증가가 나타남
- ◎ 고용률은 61.1%로 전년동월대비 0.2%포인트 증가(15~64세 고용률은 66.5%로 0.3%포인트 상승)
  - 실업자 수는 92만 3천 명으로 84천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0.3%포인트 상승
  - 20대 실업자 5만 1천 명 증가

※ 3개월 미만된 이직자 대상으로 이직사유를 보면, 명예·조기퇴직·정리해고의 사유(20천 명)가 큰 폭으로 증가

- ◎ 부문별 분석을 통해 고용성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봄
- ◎ 연령별로 볼 때, 60세 이상 연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(275천 명 ↑)하는 가운데, 청년층 고용이 31천 명 증가
  - 50대 : 인구 증가폭이 둔화(110천 명 ↑)하는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폭 133천 명 ↑
    - 50대 초반은 전년동월대비 인구가 43천 명 감소하였으며, 취업자 수는 6천 명 증가. 반면에 50대 후반은 전년동월대비 인구가 152천 명 증가하였으며, 취업자 수도 135천 명 증가
  - 60세 이상 연령층은 취업자가 275천 명 증가하였으나, 이는 전년동월대비 475천 명 증가한 인구변화 영향
  - 20대는 음식숙박업(19천 명 ↑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24천 명 ↑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19천 명 ↑) 증가에 힘입어 취업자가 41천 명 증가
    - 고졸(재학, 휴학, 중퇴는 제외)은 음식숙박업(12천 명 ↑), 건설업(13천 명 ↑) 등에서 약 71천 명 증가
    - 전문대 이상 졸업자(재학, 휴학, 중퇴는 제외)는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19천 명 ↑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11천 명 ↑) 등에서 증가했으나, 교육서비스업(36천 명 ↓) 등에서 감소하여 27천 명 취업자 수 감소
  - 30대, 40대는 인구 감소(각각 89천 명, 57천 명 감소)와 경기둔화 영향으로 취업자 수 감소(각각 61천 명, 100천 명 감소)
- ◎ 상용직 증가폭 둔화로 임금근로자 증가폭도 크게 둔화
  - 상용직 종사자 증가폭은 2016년 들어 꾸준히 감소해 2016년 10월 전년동월비 25만 5천 명 증가(2015년 하반기 521천 명 증가)
    - 특히 제조업 상용직 2012년 2월 이후 꾸준히 전년동월비 증가를 이어왔으나 2016년 7월(57천 명 ↓) 감소로 전환한 이후 8월(97천 명 ↓), 9월(94천 명 ↓), 10

월(111천 명↓) 감소

- 임시직 6만 7천 명 감소, 일용직 3만 명 감소
- 임금근로자 증가폭 158천 명↑으로 크게 둔화된 상태

◎ 자영업자 증가 전환

-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만 1천 명 증가하였으며,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4만 3천 명 증가
-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(4천 명↓)
-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통적인 형태의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(31천 명↑) 외에도 건설업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건설업(5천 명↑), 부동산 및 임대업(8천 명↑)에서도 증가하였고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15천 명↑)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11천 명↑), 제조업(11천 명↑)에서도 증가
-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음식숙박업(20천 명↑), 도매 및 소매업(19천 명↑), 제조업(25천 명↑), 부동산 및 임대업(11천 명↑)에서 증가

◎ 제조업에서는 고용 3개월째 감소 지속된 반면, 서비스업에서는 고용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

- 구조조정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던 제조업에서는 7월부터 취업자 수 감소폭 확대(7월 65천 명↓, 8월 74천 명↓, 9월 76천 명↓, 10월 115천 명↓)
  - 특히 40대(102천 명↓)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며, 30대 65천 명, 20대 초반 67천 명 감소
  -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(83천 명↓)에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, 장치기계조작원(29천 명↓), 사무종사자(21천 명↓)도 감소
  - 지역별로는 조선업 고용규모가 큰 경남(-15천 명↓), 울산(-5천 명↓)에서 크게 감소
  -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제조업(42천 명↓)에서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, 식료품 제조업(18천 명↓) 등에서 감소
- 서비스업은 390천 명 증가하여 2016년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던 흐름이 주춤

- 음식숙박업(전년동월대비 105천 명 ↑)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(92천 명 ↑)을 필두로 부동산 및 임대업(34천 명 ↑) 등에서 증가
- 음식숙박업은 주로 업종 소분류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에서 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
-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메르스 기저효과로 매월 2만 명 정도 증가하던 보건업에서 두배 정도의 고용 증가가 나타나 92천 명 증가(5개월째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). 국제금융위기 이후 사회복지업 고용 증가를 주도하던 24번 직종(어린이집 교사 포함)은 2015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되어 올해는 꾸준히 감소 지속
- 4개월째 금융 및 보험업 고용 증가.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의 판매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비전속 보험 대리점업으로 불리는 GA 판매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됨
-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주로 연구개발업 고용 증가가 취업자 증가를 이끄는 가운데, 건설업 영향을 받는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에서도 12천 명 증가
- 올해 들어 생산활동이 크게 활발해진 건설업 취업자 수는 7월에 전년동월비 1천 명 증가한 뒤 증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(8월 71천 명 ↑, 9월 41천 명 ↑, 10월 59천 명 ↑)
- 이미 상용직은 건설생산과 동조하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, 일용직 감소 지속 영향으로 건설업 고용은 감소하고 있었음. 그러나 8월 증가 전환(36천 명 ↑)에 이어 연속으로 증가폭이 확대(9월 40천 명 ↑, 10월 69천 명 ↑)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 전환된 것임
- 일용직은 외국인 고용의 영향 등으로 생산과의 관계가 명확치 않아 불확실성이 있지만, 올해 하반기를 넘어 건설업은 생산이 꾸준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건설업 부문 고용도 하반기 내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가능
- 건설업 생산 활발의 영향으로 부동산업도 증가폭이 늘어난 상태